

광주FC, 울산과 코리안컵 ‘리벤지 매치’

오늘 광주서 8강 경기
무패속 ‘물오른 기량’
“4강 넘어 우승 목표”



광주FC가 2025 하나은행 코리안컵 8강에서 울산HDFC를 다시 만난다. 지난해 4강에서 아쉽게 패했던 상대와 설욕전에 나서는 광주는, 2년 연속 4강 진출과 구단 창단 첫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선다.

광주는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과 8강전을 치른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토너먼트 승부가 아니라, 지난해 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광주가 다시 한 번 숙적을 마주하는 ‘리벤지 매치’다.

광주는 지난 16강 수원FC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기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날 골키퍼 노희동의 눈부신 선방이 팀을 구해냈다. 이정호 감독은 숨 가쁜 시즌 일정을 고려해 적극적인 로테이션을 운영하며 팀의 체력과 경기력을 동시에

끌어올려왔다.

출전 기회가 부족했던 선수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며 전력을 다져온 광주는 코리안컵뿐 아니라 K리그, ACL 등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K리그에서도 최근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리그 5위로 도약, 팀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공격진의 부활도 고무적이다. 최전방에서 멀티골이 연이어 터지며 아사니, 헤이스, 박인혁, 정지훈 등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이 동시에 올라왔다. 단단한 수비와 상승세를 탄 공격이 조화를 이루며, 광주

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다.

반면 울산은 흐름이 꺾졌다. 지난 6월 FIFA 클럽월드컵 참가로 인해 K리그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고, 도르트문트와의 친선경기를 끝으로 공식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럽·남미·아프리카 강호들과의 연속된 맞대결은 장거리 이동과 함께 체력적 소진을 남겼다.

리그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울산은 시즌 절반 이상을 치른 현재 8승 6무 5패, 승점 29점으로 7위에 머물러 있다. 당초 목표였던 리그 4연패는 멀어진 상태다. 지난 5월 24일 김천 상무전 승

리 이후 한 달 넘게 승전고를 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광주는 지난해 코리안컵 4강에서 울산에 패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된 바 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8강전 그 이상이다. 광주가 다시 한 번 울산을 넘는다면, 구단 역사상 첫 결승 진출이자 첫 우승이라는 문턱을 눈앞에 두게 된다.

이정호 감독은 “울산과의 코리안컵 8강전은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 후 A매치 휴식기로 인해 2~3주 정도 회복 시간이 보장된 만큼, 모든 걸 쏟아부겠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KIA 최형우, KBO 홈런 더비 후보에

12명 중 팬 투표로 8명 결정

KIA 타이거즈 최형우(사진)가 ‘별들의 전쟁’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 더비’ 출전 후보 선수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올스타전 출전 선수 중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올 시즌 8개 이상의 홈런을 친 선수들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에 오른 선수는 르윈 디아즈, 구자욱(이상 삼성 라이온즈), 오스틴 딘, 박동원(이상 LG 트윈스), 최형우(KIA 타이거즈), 송성문, 이주형(이상 키움 히어로즈), 안현민(kt wiz), 김형준(NC 다이노스), 최정(SSG 랜더스), 빅터 레이에스(롯데 자이언츠), 문현빈(한화 이글

스) 12명으로 팬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홈런 더비에 출전할 선수를 직접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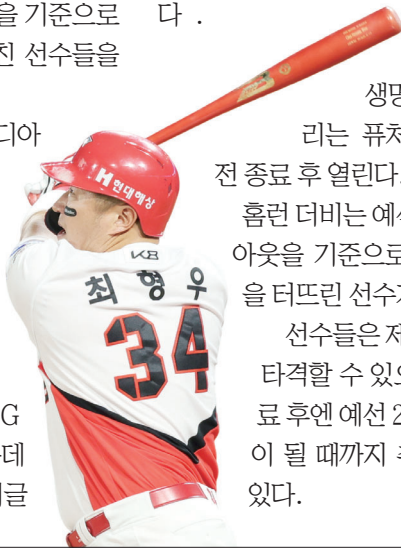
투표는 1일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공식 앱을 통해 진행되며 득표수 상위 8명이 출전권을 얻는다. 하위 4명은 탈락한다.

홈런 더비 출전 최종 명단은 4일 공개된다 .

홈런 더비는 11일 대전 한화생명 불파크에서 열리는 퓨처스(2군) 올스타전 종료 후 열린다.

홈런 더비는 예선 7아웃, 결승 10아웃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홈런을 터뜨린 선수가 우승한다.

선수들은 제한 시간 2분 동안 타격할 수 있으며 제한 시간 종료 후엔 예선 2아웃, 결승 3아웃이 될 때까지 추가로 타격할 수 있다. **민현기 기자**



KIA 고종욱, SSG전 5번 배치… 이범호 “컨택 능력 우위”

테이블세터 좌타자 이창진·박찬호

KIA 타이거즈 고종욱(사진)이 최근 타격 감각을 앞세워 이범호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중심타자로 나선다.

이범호 KIA 감독은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에서 “(오)선우보다는 컨택이 좋은 (고)종욱이를 중심에 둔다”며 타격 능력이 뛰어난 고종욱을 중심타자로 기용한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타점 기회가 왔을 때 점수를 내는 능력에서 종욱이가 선우보다 더 나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종욱은 올 시즌 14경기에서 타율 0.375(24타수 9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하며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직전 경기인 지난 29일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

기에서는 4타수 3안타 1타점 1도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또한, 대타로 나섰던 지난달에는 0.400의 타율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고종욱의 중심타자 기용에 따라, 이창진과 박찬호는 테이블세터로 경기에 나선다.

이 감독은 “SSG 선발 김건우가 좌타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창진과 박찬호를 초반에 나가게 하는 것이 공격적 측면에서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범호 감독은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며 “SSG와 롯데 자이언츠는 외인 투수들이 평일에 나오지 않고 국내 투수들이 등장할 예정이므로 타자들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주와 한화 경기를 잘 넘기면 후반기에는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서석중 옥하준, 회장기 검도대회 개인전 우승

올 시즌 2관왕… 청소년대표 선발

광주서석중학교 옥하준(3년·사진)이 제34회 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남중부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옥하준은 지난달 26~29일 전남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1회전부터 결승까지 모두 7경기를 치르며 단 한 차례의 패배 없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옥하준은 결승전에서 사공민찬(성남중)과 연장 혈투 끝에 허리치기로 1-0 결승점을 따내며 극적인 우승을 완성했다.

이번 우승은 지난 5월 열린 용인대 총장기 개인전 우승에 이은 시즌 두 번째 개인 금메달이다. 여기에 SBS검도왕대회 개인 3위, 대통령기 전국대회 개인 3위에 이



어 2025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까지 겹쳐사를 맞으며 중등부 최강자의 면모를 입증했다. 옥하준은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주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광주서석중은 올해 전국 주요 대회에서 단체전 3관왕을 달성했으며, 옥하준은 팀의 중심축으로 활약했다.

옥하준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땀 흘린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남은 전국대회에서도 광주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광주화정남초 박유찬, 전국씨름선수권 역사급 우승

광주화정남초 박유찬(6년)이 제79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역사급 우승을 차지했다.

박유찬은 지난달 28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초등학급부 역사급(70kg이하) 결승에서 장준영(서울장곡초)에 2-1로 이겨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유찬은 결승에서 첫 판을 잡채기로 상대를 눕히며 기선을 잡았다. 두 번째 판에서 장준영의 발다리에 일격을 당한 박유찬은 세 번째 판에서 발다리로 응수하



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박유찬은 앞서 지난 5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일궈

광주 씨름 기대주로 떠올랐다.

화정남초 최승민(6년)은 같은날 초등 학교부 소장급(45kg이하) 준결승에서 박유진(경기 광주초)에 0-2로 져 동메달에 만족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육중 핀수영, 이충무공배 중등부 종합우승

금 8·은 2·동 1개… 강운호 4관왕

광주체육중학교 핀수영부가 제22회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대회에서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 핀수영부는 지난달 28~30일 충남 아산 배미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중등부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뒀다.

강운호(2년)가 4관왕을 달성하며 팀의 선전을 이끌어 중등부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강운호는 남중부 표면 100m(45초53)와 표면 50m(19초88)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운호는 또 짝핀혼성계영 400m에 김여울·오수현(이상 1년)·최성연(3년)과 호흡을 맞춰 3분39초65의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운호는 김가을·윤호정(이상 3년)·김원우(2년)와 함께 출전한 혼합계영 400m에서도 3분31초66으로 금메달을 추가



광주체육중학교 핀수영부 선수들이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 배미수영장에서 끝난 제22회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대회에서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효정, 김가을, 오수현, 김원우, 강운호, 최성연, 김여울 선수, 윤아현 지도자. **광주체육 제공**

했다.

김원우는 남중부 표면 400m(3분43초13)와 표면 200m(1분44초17)에서 각각 금빛 물살을 가르며 3관왕에 올랐다.

최성연은 여중부 무호흡잠영 50m에서 18초48로 금메달을 추가, 2관왕을 차지했다.

윤호정은 여중부 표면 400m(3분49초73)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오수현은 여

중부 표면 200m(1분42초52)에서 은메달을, 표면 100m(45초77)에선 동메달을 각각 따냈다.

윤아현 광주체중 핀수영 지도자는 “학생들이 훈련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열정이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도와 꾸준한 성장을 통해 더 큰 무대로 나아가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전남체육회, 스포츠클럽 지원 국비 1억4천만원 추가 확보

전라남도체육회가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전문선수반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서 1억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일 “대한체육회가 지

난 5월부터 공모한 ‘2025년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및 특화프로그램 추가 공모’에 도내 3개 클럽이 참여해, 총 8개 프로그램이 100%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 기존 지정스포츠클럽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남에서는 △전문선수반 2개 △특화 프로그램 6개 등 총 8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전남체육회는 이번 추가 선정으로 2025년 전체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국비 공모에서 총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최동환 기자**